함평 나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광주 - 동광령IC 구간 광역 동행료 환불
우천시 9홀 이후 홀별요금정산제 실시
예약 : www.hpdynasty.co.kr 061) 320-7700

신지애 사상 첫 국내 메이저 2관왕

한국여자오픈 이어 KLPGA선수권 우승…시즌 5승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사진)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서 또 한번 새로운 역사를 썼다.

신지애는 26일 경기도 여주 자유골프장(파72·6천508야드)에서 열린 제30회 신세계KLPGA선수권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타수를 줄이지 못했지만 합계 7언더파 209타로 안선주(21·하이마트)를 2타차로 따돌리고 시즌 다섯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5월 태영배 제22회 한국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신지애는 시즌 두번째 메이저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르면서 KLPGA에서 처음으로 한 시즌에 두차례 메이저대회를 우승한 선수가 됐다.

이에 따라 신지애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KLPGA 풀시드권을 갖게 됐다. 또 우승 상금 6천만원을 보탠 신지애는 시즌 상금 5억1천500만원으로 1위 자리를 굳게 지키며 3년 연속 상금왕을 향한 7부 능선을 넘었다.

2년 연속 시즌 상금 5억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록도 추가했다. 구름 한 점없이 쾌청한 날씨가 계속됐지만 강풍 때문에 선수들의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다.

신지애와 함께 공동 선두로 챔피언조에서 경기를 펼친 임지나(21·코오롱)와 우지연(21·하이마트)이 전반에 각각 4타와 5타를 까먹으면서 우승권에서 멀어졌지만 먼저 출발한 안선주가 2타를 줄이며 신지애에 1타차로 따라붙었다.

전반에 버디없이 1타를 잃은 신지애는 11번홀(파5)에서 1타를 잃어 안선주에게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그러나 차분하게 기회를 노리던 신지애는 15번홀(파5)에서 세번째 샷을 홀 '한 뼘 뒤에 붙여 버디를 잡아내며 단독 선두로 나섰고 17번홀(파4)에서 다시 1타를 줄여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앞서 경기를 치른 안선주는 기의 흐름을 돌려 놓을 수 있었던 18번홀(파4) 2.5m 버디 퍼트가 홀 바로 앞에서 멈춰 선 것이 못내 아쉬웠다.

윤채영(21·LIG)이 4언더파 212타로 3위, 김혜윤(19·하이마트)이 3언더파 213타로 4위에 올랐고 전날 공동 선두였던 우지연은 2언더파 214타로 공동 5위, 임지나는 공동12위(1언더파 215타)로 밀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연합뉴스

'양박' 주말 출격
시즌 2호 골 도전

■ 박지성 오늘 밤 11시 볼턴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008-2009 시즌 마수걸이 득점포를 일찌감치 터트린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2호골을 정조준한다.

박지성은 27일 밤 11시(이하 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포드에서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볼턴 원더러스와 홈경기에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8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32강 조별리그 비야레알과 홈경기에서 새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격했던 박지성은 사흘 뒤 첼시와 정규리그 원정에서 선발로 나와 전반 18분 선제골을 터트리며 주전 경쟁에 파란불을 켰다.

이후 24일 열린 미들즈브러와 칼링컵 경기에 결장하며 충분히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번 볼턴과 정규리그에서 박지성의 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

시즌 2호골을 기록하기에도 좋은 기회다. 유난히 볼턴에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박지성은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고 9개월을 쉬기 직전인 작년 3월18일 볼턴과 경기에서 2골을 뿜어냈다. 프리미어리그 진출 이후 한 경기에서 2골을 넣은 것은 볼턴과 경기 뿐이다.

볼턴을 만났다는 것이 이번에도 박지성의 골 소식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맨유로서도 상위권 도약을 위해 중요한 경기. 맨유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빅4'를 형성하고 있는 아스널(승점 12), 첼시, 리버풀(이상 승점 11)이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리그 2연패를 노리는 맨유는 시즌 초반 1승2무1패(승점 5)로 부진하며 15위에 처져 있어 볼턴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 박주영 내일 밤 12시 릴전

프랑스 리그에 진출한 박주영(23·AS 모나코)도 2호골을 노린다. 박주영은 28일 밤 12시 홈구장인 루이 2세 경기장에서 릴과 리그 7라운드 홈경기를 앞두고 있다.

지난 14일 로리앙과 5라운드에서 선발로 출전해 1골1도움으로 2-0 승리를 이끌며 환상적인 데뷔전을 치른 박주영은 22일 마르세유와 6라운드를 풀타임으로 뛴 뒤 25일 파리 생제르맹과 리그컵대회 32강전에서도 후반 교체 투입돼 20분을 소화하며 3경기 연속 출전을 기록하고 있다.

데뷔전부터 자신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며 주전 자리를 확보한 데다 바로 직전 경기에서 체력을 보충하며 실전 감각까지 가다듬었으니 이번에도 문제없이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주영의 경기력을 점검하기 위해 허정무 대표팀 감독이 경기를 직접 관전할 예정이어서 박주영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이밖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설기현(29·풀럼)은 27일 밤 11시 웨스트햄과 홈경기를 치르고 같은 시간 김두현(26·웨스트브롬)도 미들즈브러와 원정경기에 출격한다.

독일 분데스리가로 진출한 이영표(31·도르트문트)는 같은날 오후 10시30분 슈투트가르트와 홈경기를 앞두고 있다.

태극남매 美그린 선두 질주

앤서니 김 6언더 투어챔피언십 1R

미국-유럽 골프대항전 라이더컵에서 맹활약을 펼쳐 상종가를 친 재미교포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앤서니 김은 26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이스트레이크골프장(파70·7천154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6언더파 64타를 때려 단독 선두에 나섰다.

2언더파 68타를 친 필 미켈슨(미국), 어니 엘스, 트레버 이멜만(이상 남아공) 등 2위그룹을 4타차로 제친 앤서니 김은 최정상급 선수 30명만 출전해 '올스타전'으로 불리는 투어챔피언십 제패를 향한 든든한 디딤돌을 놓았다.

앤서니 김은 평균 304야드에 이르는 장타를 날리면서도 페어웨이 안착률은 71%에 이르렀고 그린 적중률도 72.2%로 빼어났다.

그린 플레이마저 따라준 앤서니 김은 버디를 8개나 뽑아내며 신바람을 냈다.

3주 가량 휴식을 취한 뒤 모처럼 모습을 드러낸 최경주(38·나이키골프)도 1언더파 69타를 치며 공동 5위에 올랐다.

장 정 7언더 나비스타클래식 1R

장정(28·기업은행)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코리언 시스터스'의 시즌 일곱번째 우승컵 사냥의 선봉에 섰다.

장정은 26일(한국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프래트빌 RTJ골프트레일골프장(파72·6천571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나비스타클래식 1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뿜어냈다.

질 맥길(미국), 재미교포 제인 박(21) 등 2명과 함께 공동 선두에 오른 장정은 2006년 웨그먼스LPGA 제패 이후 2년 동안 인연이 없었던 우승 기회를 잡았다.

장정은 2005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시즌 상금 100만달러를 넘기며 랭킹 10위 이내로 시즌을 마쳤고 올해도 88만9천달러를 벌어들여 11위에 올라 있는 꾸준함이 돋보이지만 정작 우승이 없어 애를 태웠다.

키릴렌코 4강 '스매싱' 26일 서울 올림픽공원 테니스 경기장에서 열린 2008 한솔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 준준결승에서 러시아의 마리아 키릴렌코가 프랑스의 폴린 파멘티에를 향해 백핸드 스크로크를 날리고 있다. 키릴렌코는 이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하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수피아 여고 우승

상주여고 85-74 제압
추계 중·고 농구연맹전

수피아여고가 제 38회 전국추계 중고농구연맹전 여고부 우승을 차지해 개교 100주년을 자축하는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수피아여고는 26일 경북 상주시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여고부 결승에서 상주여고를 85-74로 물리쳤다. 전반을 40-38로 근소하게 앞선 수피아여고는 3쿼터에서 심성영의 경기조율과 김보미, 김선아의 골밑 공격을 앞세워 점수 차를 8점으로 벌렸다.

수피아여고는 4쿼터 시작 2분여 만에 64-63으로 역전되기도 했으나 김보미와 명금아가 연속 득점을 올리며 다시 전세를 뒤집었고 끝까지 리드를 뺏기지 않았다. 수피아여고는 심성영이 혼자 31점을 퍼부었고 명금아와 김선아가 12점씩 보탰다.

1908년 설립된 수피아여고는 이날 우승으로 개교 100주년의 기쁨을 더했다.

수피아여고는 올 시즌 첫 전국대회를 제패했으며 1995년 이후 13년만에 추계연맹전 정상을 탈환했다. 최우수선수에는 이날 20점, 16리바운드를 기록한 수피아여고 김보미가 뽑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포츠중계

27일(토)
▲2008 LPGA 나비스타 LPGA 클래식 2R(08 : 00·SBS골프)
▲2008 한솔 코리아 오픈 테니스 준결승(11 : 00·KBS N SPORTS)
▲2008 SBS코리아투어 삼성 베네스트 오픈 3R(14 : 10·SBS골프)
▲2008 프로야구〈LG : KIA〉(16 : 50·SBS스포츠)
▲08/0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맨체스터Utd : 볼튼〉(22 : 50·MBC ESPN)

28일(일)
▲2008 PGA 투어 챔피언십 3R(00 : 30·SBS골프)
▲2008 LPGA 나비스타 LPGA 클래식 3R(08 : 00·SBS골프)
▲2008 K리그〈서울 : 전남〉(15 : 00·KBS N SPORTS)
▲2008 SBS코리아투어 삼성 베네스트 오픈 FR(16 : 00·SBS골프)